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4년 2월 29일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3 국외 항만 주요 동향

23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부산항, LNG 벙커링 실증사업 성공
- 광양항, 항만연결성지수 4분기 연속 상승
- 울산항, STS 방식으로 그린메탄올 벙커링 성공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중국 지역 클러스터 무역 활성화
- 파나마 운하 통행료 수입 감소
- 농민 시위로 주요 유럽항만 운영 차질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홍해 리스크 향후 1년 지속 가능 경고
- 국토교통부 '24년 골재수급계획 발표
- 미국,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핵심광물협의체 구성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1 LNG 벙커링 실증사업 성공¹⁾

- ❖ 지난 2월 13일~14일 양일간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에서 부산항 최초로 STS(Ship To Ship) 방식의 LNG 벙커링 실증사업이 성공함
 - 해외 선사의 자동차운반선을 대상으로 LNG 1,500만 톤을 공급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는 부산항 최초의 LNG 벙커링 실적임
 - 해당 실증사업은 해양수산부 주도로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따라 LNG 추진선 발주 및 운항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대비하여 국내 항만의 LNG 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됨
 - 부산항만공사(BPA)는 실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 제공 및 관계기관 협의체 가동을 통한 안전관리 등을 지원함
- ❖ BPA는 금번 실증사업을 기반으로 향후에는 컨테이너선 대상의 LNG 벙커링 및 하역 동시 작업 등의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실증 성공 사례를 글로벌 선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마케팅에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LNG 공급 시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에서 활용 가능한 메뉴얼을 마련해 공유할 예정임
- ❖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BPA는 부산항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부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힘
 - BPA는 지난 '23년 11월에 '동남권 항만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LNG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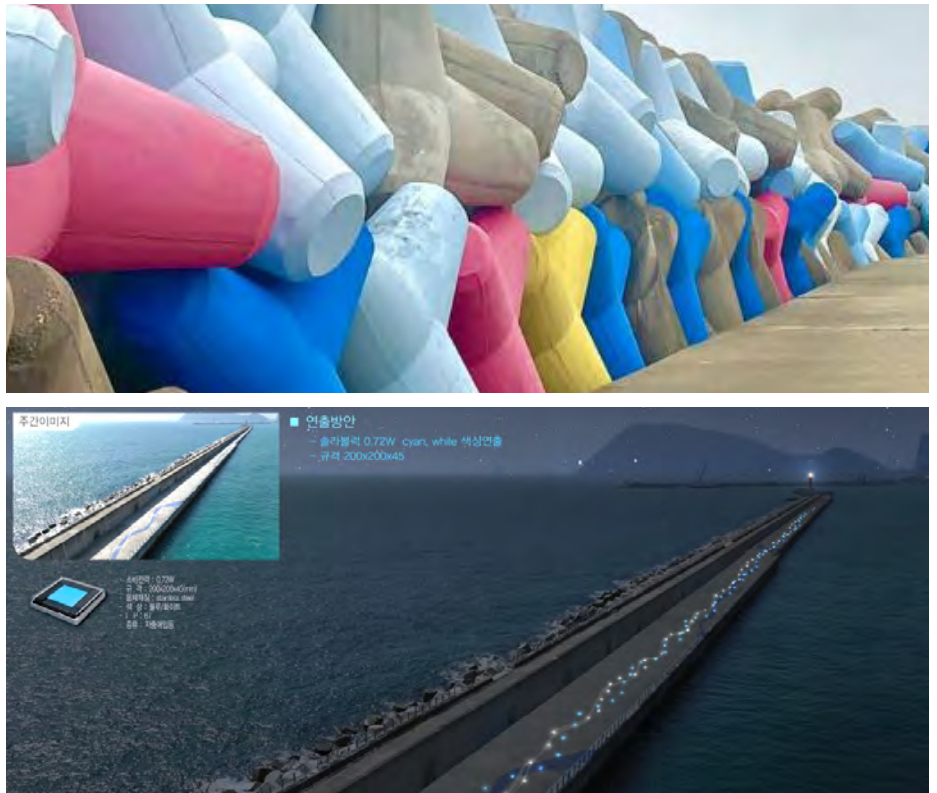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부산항 환경개선을 통한 시민친화형 항만 조성²⁾

-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시설에 공공디자인 도입 등을 통해 시민들이 항만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시설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라 밝힘
 - 해당 사업은 ‘부산항 환경개선 프로젝트’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항만 내 항만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 노면 표시, 지역주민과 환경을 고려한 편익시설(안전쉼터, 야간조명 등) 설치, 기존 항만시설에 공공디자인(채색, 조명, 조형물 등) 도입 등이 있음
- 📍 특히, 노후화되거나 유풍화된 항만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으로 조성하여 부산항을 미항으로 탈바꿈하고자 함

항만시설 공공디자인
참고 자료



자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https://www.portbusan.go.kr/board/boardView.do?MENU_ID=M0000032&CATEGORY_CD=A&selectPage=1&SEARCH_CODE=&SEARCH_WORD=&ORD_NO=12212\(2024.02.15. 검색\)](https://www.portbusan.go.kr/board/boardView.do?MENU_ID=M0000032&CATEGORY_CD=A&selectPage=1&SEARCH_CODE=&SEARCH_WORD=&ORD_NO=12212(2024.02.15.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4.01.22.), [https://www.portbusan.go.kr/board/boardView.do?MENU_ID=M0000032&CATEGORY_CD=A&selectPage=1&SEARCH_CODE=&SEARCH_WORD=&ORD_NO=12212\(2024.02.15. 검색\)](https://www.portbusan.go.kr/board/boardView.do?MENU_ID=M0000032&CATEGORY_CD=A&selectPage=1&SEARCH_CODE=&SEARCH_WORD=&ORD_NO=12212(2024.02.15. 검색))

2) 인천항

1 인천항만공사(IPA), '23년 인천항 화주·포워더 인센티브 지급 예정³⁾

- IPA는 인천항 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선사, 화주, 포워더 등을 대상으로 총 7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임
- IPA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06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올해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인센티브를 희망하는 화주와 포워더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24년 4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실적검증을 통해 지급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에게 지급될 예정임
-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⁴⁾ 선사와 화주·포워더가 구분되어 있으며, 선사 인센티브 제도의 상세 기준과 각각의 대상은 다음과 같음

선사 인센티브 지급 기준

	신규 전략 항로
기준 1	(대상) 주 1회 서비스 기준 개설 후 1년간 35항차 이상 기항 및 1.5TEU 이상 처리
	수출입 물동량
기준 2	(대상-규모형) 2023년 인천항 처리 '컨' 물동량 규모 1~5위 선사 (연간 10만 TEU 이상 처리 필수)
	(대상-증가형) 2023년 인천항 처리 '컨' 물동량이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한 선사 (연간 2만 TEU 이상 처리 필수)
	환적
기준 3	(대상) 2023년 인천항 '컨' 환적(적/공) 물동량 1,000TEU 이상 처리선

자료: 인천항만공사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2.05.),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6626&boardKey=217&menuKey=400¤tPageNo=1> (2024.02.16. 검색)

4)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https://www.icpa.or.kr/content/view.do?menuKey=2136&contentKey=569>(2024.02.16. 검색)

2 인천항만공사(IPA), 5차년도 인천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VSR) 시행⁵⁾

- IPA는 지난 1월 31일,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차년도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 이하 VSR) 시행을 발표함
- VSR은 대상 선박이 인천항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로 저속 운항할 경우, 총 5억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항비의 15~30%를 감면해 인센티브로 환급해 주는 제도임
- 인천항의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대상 선박은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자동차운반선, 세미컨테이너선 중 3천 톤 이상인 외항선임
- IPA에 따르면 인천항이 VSR을 처음 도입한 '19년도에는 대상 선박 중 약 31%가 참여했으나 '23년도에는 약 68%가 참여하는 등 매년 참여 선박이 증가하고 있음

연도	기간	대상 선박(척)	참여 선박(척)	참여율
1차년도	'19.12~'20.12	4,688	1,450	31%
2차년도	'21.1~'21.12	3,145	1,995	63%
3차년도	'22.1~'22.12	3,136	2,098	67%
4차년도*	'23.1~'23.12	3,456	2,355	68%

주: 4차년도 실적의 경우 '24.1.25. 기준 미확정 자료로 해양수산부 검증 결과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음
 자료: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1.31.)

- 한편, 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선박 속력 20% 저감 시 연료 소모량이 49% 감소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으며, VSR의 지속적인 시행을 통해 인천항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됨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5)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1.31.),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6536&boardKey=217&menuKey=400¤tPageNo=1> (2024.02.16. 검색)

3) 여수·광양항

1 광양항, 항만연결성지수 4분기 연속 상승⁶⁾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서 매 분기 발표하는 항만연결성지수에서 광양항이 4분기 연속 상승했다고 밝힘
- 항만연결성지수⁷⁾는 UNCTAD에서 세계 900여 개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의 선박수용능력이나 컨테이너 정기선 입항 빈도 등 6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발표하는 지수임
- 광양항은 '23년도 4분기 기준 37개국 115개 항만과 연결되어 전년(61.86점) 대비 상승한 63.8점을 기록, 세계 30위를 기록함
- 세계 상위 100위권 항만들의 항만연결성지수 평균 점수는 약 58.6점이며, 세계 900여 개 항만의 연결성지수 평균은 약 13.4점 수준임
- YGPA는 항만연결성지수의 4분기 연속 상승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발로 뛰는 마케팅의 주요 성과로서, 8개 신규 서비스(유럽 및 중남미 원양서비스 포함) 유치를 통한 8개국 12개 항만의 신규기항, 세계적인 컨테이너선박 대형화에 대응한 기존 서비스들의 대형선 교체 및 선복량 확대에 따른 것으로 평가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6)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4.01.30.),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213&mode=view&cntId=1631&category=\(2024.02.15. 검색\)](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213&mode=view&cntId=1631&category=(2024.02.15. 검색))

7) UNCTAD에서 항만의 주당 선박 입항 횟수, 연간 항만 수용능력, 정기선 운송 서비스 수, 정기선 서비스 제공 선사 수, 최대 수용 가능한 선박 선형, 직기항 서비스로 연결된 항만의 수 등 6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2006년 홍콩항 연결성 지수(100)를 기준으로 산정함

4) 울산항

1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세계 최초 선박 대 선박(STS) 방식 메탄올 벙커링 성공⁸⁾

- 울산항만공사(UPA)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울산항에서 메탄올 추진 1만 6,2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대상 그린메탄올 연료 공급에 성공함
 - 머스크라인의 해당 선박은 HD현대중공업에서 인도받은 세계 최초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으로 아시아-유럽 원양항로 운항을 앞두고 울산항에서 친환경 선박연료를 급유함
 - 최근 세계 선사들이 발주한 메탄올 추진선의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메탄올 연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UPA는 '23년 7월과 11월 메탄올 연료 벙커링에 연이어 성공한 이후 중국 항만을 제치고 금회 그린메탄올 연료 공급 유치에 성공함
 -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친환경 운항 시대 도래에 따라 울산항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거점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8) UPI 뉴스(2024.02.04.), [https://www.upinews.kr/newsView/1065595471093572\(2024.02.16. 검색\)](https://www.upinews.kr/newsView/1065595471093572(2024.02.16. 검색))

5) 평택·당진항

1 평택항 인근, 국내 최대 규모 '수소교통 복합기지' 운영 개시⁹⁾

- 평택시는 평택항 인근에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충전시설인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힘**

 -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평택항 인근 5천 m² 부지에 조성된 수소 충전시설로 수소를 연료로 활용하는 대형 화물차, 카캐리어, 하역장비 등의 충전이 가능하며, 버스 기준 시간당 6대를 충전할 수 있고 3기의 충전기로 수소 모빌리티에 하루 2.65톤의 수소 충전이 가능함
 - 복합기지에 사용되는 수소는 '22년 7월 인근에 건립된 '수소생산시설'과 연결된 배관을 통해 공급됨
 - 복합기지에는 충전시설 외에도 수소모빌리티 스타트업 창업지원센터와 편의시설 등이 갖춰져 있으며, 작년 11월 준공 후 두 달여 간 시운전과 성능 점검 등을 거쳐 1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됨
 - 국토교통부는 '20년 수소교통 복합기지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평택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수소교통 복합기지 건립에는 국·도비 68억 원과 시비 36억 원, 참여 기관 25억 원 등 12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6) 포항항

1 영일만항, 컨부두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¹⁰⁾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월 14일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힘**

 - 최근 영일만항은 컨테이너 화물물동량이 감소세를 기록하고, 기존 항만이용자들의 부두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이 표출되는 등 항만 전반에 부정적인 상황들이 대두됨
 - 이러한 부정적인 여건들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경북도, 포항시, 부두운영사가 참석함
 - 간담회에서는 신규화물 유치를 위한 합동 포트세일 활동과 기존 항만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부두운영사와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9) 연합뉴스(2024.01.24.),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4116800061?input=1195m>(2024.02.16. 검색)

10)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4.02.15.), <https://pohang.mof.go.kr/ko/board.do?menuIdx=2855&bbsIdx=102624>(2024.02.15. 검색)

7) 동해·묵호항

1 동해항 중앙부두 기반공사 준공¹¹⁾

-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청)은 18억 5,0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9월 착공한 동해항 부두 이용의 안정성 및 사용성 증대를 위한 '중앙부두 기반보강공사'를 저유동성 몰탈주입공법으로 시공, 2월 6일 준공함
 - 동해항 중앙부두는 매립 토사 유실에 따른 지반침하 및 시설물 손상으로 하역사 등 항만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유동성 몰탈주입공법을 도입함
 - 저유동성 몰탈주입공법은 장비를 사용하여 유동성이 매우 낮은 시멘트 몰탈을 지반 내부에 주입함으로써 지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력 확보와 매립지 유실 방지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시멘트 몰탈은 경화되어 있는 시멘트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시멘트에 모래를 첨가하고 물과 섞어 쓰는 제품임
 - 동해청은 동해항 항만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두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물의 적기 보수·보강 실시 등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4.02.06.), <https://donghae.mof.go.kr/ko/board.do?menuIdx=2536&bbsIdx=102436>(2024.02.10. 검색)

8) 목포항

1 목포신항,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착공¹²⁾

-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목포신항에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내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지원 기반 시설인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착공식이 개최됨**

 -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357억 원이 투입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신항 일원에 연면적 3,300㎡, 4층 규모의 플랫폼 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해상풍력 유지관리 및 물류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항만 물류 인프라 구축, 발전단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목포시는 해상풍력 관련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도 준비 중이라고 밝힘**

 - 기회발전특구는 現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편, 목포신항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고중량 화물의 야적·운송·조립이 가능한 철재부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에 15만 평 배후부지 조성에 따라 관련 기업 유치 가능성이 높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조감도



자료 :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16513711>(2024.02.15.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2) 세계일보(2024.01.16.),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16513711>(2024.02.15. 검색)

9) 대산항

1 서산시, 대산항 명칭 ‘서산항’ 변경 여론 형성¹³⁾

- 대산항은 물동량 기준으로 국내 6대 항만 규모이나, 대산항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읍 단위 지명인 ‘대산’을 사용하고 있어 명칭 변경 여론이 발생하고 있음**

 - 대산항은 충남 서산시 대산을 대죽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1년 10월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래로 대산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관리청의 경우, 1982년 해운항만청 군산지방해운항만청 대산출장소로 시작하여 읍 단위인 대산이 포함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운영되고 있음
- 시민들은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대산항’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서산시 지명인 ‘서산’을 활용하는 ‘서산항’과 ‘서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함**

 - 서산시는 항만의 명칭으로 지방자치 단위의 명칭을 사용해야 그 지역 배후 도시를 대표한 항만권역 내 경제권 규모와 수용력을 잘 나타낼 수 있다는 입장임
 - 또한, 항만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의 잠재적 성장을 도모하여 항만의 신뢰도 제고 및 선박 기항 유치 등의 활용이 가능함을 들어 항만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0) 군산항

1 익산시, 베트남산 요소 2,500톤 군산항 수입 시작¹⁴⁾

- 베트남 현지에서 확보한 베트남산 요소 2,500톤 중 1차 선적분 600톤이 지난 2월 6일 군산항을 통해 수입됨**

 - 익산시는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요소수 생산업체인 아톤산업과 지난 1월 페트로베트남 비료회사(PVFCCo)와 요소 수입을 위한 MOU를 체결함
 - 베트남 현지에서 확보한 베트남산 요소 2,500톤 중 1차 선적분 600톤이 군산항을 통해 수입되었으며, 이후 매월 1,500톤이 순차적으로 수입될 예정임
 - 익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베트남산 요소 확보를 통해 요소의 안정적인 공급과 향우 요소수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13) 충청일보(2024.01.29.),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3634>(2024.02.16. 검색)

14) 익산시 보도자료(2024.02.07.), https://www.iksan.go.kr/board/view.iksan?boardId=BBS_IKSAN_BODO&menuCd=DOM_000002003008003001&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keyword=%EA%B5%B0%EC%82%B0%ED%95%AD&dataSid=1155401(2024.02.16. 검색)

11) 마산항

1 마산항·국도항 항만개발에 206억 원 투입¹⁵⁾

- ▶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청)은 올해 경남권 국가관리무역항인 마산항과 국가관리연안항인 국도항 개발을 위해 국비 20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주요 사업은 국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67억 원), 마산항 내 안전 강화를 위한 유지보수공사(33억 원), 마산항 주변 환경개선사업(11억 원), 마산항 해양친수공원 시민휴식공간 제공 지원을 위한 관리·운영비(9억 원) 등임
- 마산청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남해동부 해양영토 끝단에 위치한 국도항에 해경선 접안이 가능한 방파제를 건설, 해양영토 관리 거점을 마련하고 낙후도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존 선착장 개보수를 계획함
- 또한 항만생산성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산항 내 노후·파손된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유해 위험 요소를 제거, 항만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예정임
- 마산항 서항지구 및 구항 방재언덕의 효율적인 항만친수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지원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및 항만시설물의 안전컨설팅용역을 지속 추진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1 항만 네트워크 구축으로 남미 교역 확장 전망¹⁶⁾

- 올해 말 개장 예정인 페루의 찬카이항은 중국에서 남미 지역으로 가는 직접적인 관문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국과 남미의 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찬카이항은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전략의 일환인 항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국 국영 기업인 코스코 해운이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는 심해항으로 남미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통제하는 항만이 될 것임
 - 찬카이항은 페루 리마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며 '18년 착공을 시작하여 1단계가 '24년 11월 완공 예정임
- 중국은 남미의 대두, 옥수수, 구리 등을 수입하면서 미국을 제치고 남미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자리하였으며 지난 10년간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

 - 특히 페루에서 구리 수입을 꾸준히 확대하였으며, 같은 기간 페루 광산, 전력망, 운송 및 수력 발전 등에 약 24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옴
- 중국은 찬카이항을 남미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항만 중심지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아시아와 남미와의 직항로 개설을 통해 페루의 구리 및 리튬, 브라질의 곡물 및 육류 등의 운송 시간을 단축시키고자함

16) REUTERS(2024.01.18.),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widens-south-america-trade-highway-with-silk-road-mega-port-2024-01-18/>(2024.02.15. 검색)

- ◆ 남미 지역이 미국, 유럽, 중국 사이의 광물 격전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미국 경제동맹 등에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한국의 경제·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중국은 지난해 우루과이, 콜롬비아와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등 남미 지역 국가에서의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찬카이항과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및 도로 등 기반 시설 부족 문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부실채권 증가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문제로 찬카이항 성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함

**페루 교역 현황
(미국 vs 중국)**

Peru: USA vs China

Over the last decade China has overtaken the United States as Peru's top trade partner, gobbling up the country's main export copper, and is now consolidating that lead.



자료: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widens-south-america-trade-highway-with-silk-road-mega-port-2024-01-18/> (2024.02.15.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중국 역내 지역 간 무역 활성화¹⁷⁾

- 중국은 인접 지역 간 통관절차 간소화 등 혁신적인 융합 정책으로 지역 간 무역이 활성화되고 있음
 - 특히, 최근 베이징, 텐진시, 허베이성 인접 지역들을 통칭하는 징진지(Jing-Jin-Ji)에서의 무역 증가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베이징의 경우 항만이 없어 텐진이 베이징과 허베이 지역의 해상 무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베이징과 텐진 지역 간의 원활한 화물 운송을 위해 지난해 8월 베이징 국제공항 경제구역위원회와 텐진항 자유무역구 행정위원회가 통관통합 제고를 목표로 협력을 위한 각서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탄력을 받음
 - 또한, 지난해 5월에는 텐진항 그룹과 허베이항 그룹 간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의 협력 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정도 체결됨
- 베이징과 텐진항 해상통로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로 일부 화물의 경우 운송 시간이 기존 3일에서 1일로 단축되는 등 무역 효율성이 개선됨
 - 특히 온도 조절에 민감한 화물인 의약품의 경우 통관 시간 단축에 따른 혜택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의약품 교역의 약 16%가 텐진항을 통해 해상화물로 수입됨
 - 한편, 징진지 지역의 수출입 총액은 5조 300억 위안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수입은 총국가 수입액의 20%를 차지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7) China Daily(2024.02.13.), <https://www.chinadaily.com.cn/a/202402/13/WS65cb08d9a3104efcbdaeabe8.html>(2024.02.15. 검색)

2) 아시아



1 대만계 선사 Yang Ming, 아시아 역내항로 강화¹⁸⁾

- 📌 양명해운은 TS라인, 인터아시아라인과 3월부터 우리나라~일본~중국~대만~동남아시아 등을 연결하는 PAS(Pan-Asia Service)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임
 - 양명해운 등 3개 선사는 1,800TEU급 컨테이너선을 1척씩 총 3척을 투입할 계획이며, 기항지에 베트남 호찌민을 새롭게 추가해 수송 수요에 대응할 예정임
 - 개편된 서비스 노선은 3월 8일 TS라인이 홍콩에서 출항하는 편부터 시작 될 예정이며, 기항지는 부산항, 광양항, 지룽항(대만), 가오슝항(대만), 홍콩항(중국), 서커우항(중국), 난사항(중국), 호찌민항(베트남) 등임
 - 양명해운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아시아 역내항로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신규 항로를 통해 한국 뿐 아니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물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2 나고야항, '23년 수출입화물 처리량 전년 대비 소폭 성장¹⁹⁾

- 📌 나고야항만공사는 '23년도 나고야항이 253만 4천 TEU(잠정)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0.1% 성장했다고 밝힘
 - 수출은 '22년 132만 4,400TEU에서 132만 3,300TEU로 0.1% 감소한 반면, 수입은 121만 6,000TEU로 전년(120만 6,900TEU) 대비 0.3% 증가함
 - 적 컨테이너 처리량은 수출이 5% 늘어난 104만 3,800TEU, 수입은 5% 감소한 107만 8,900TEU로 각각 집계됨
 - 북미 등 기간항로 물동량과 동남아시아 교역 화물은 늘어난 반면 아시아역내 및 중국 물동량은 마이너스 성장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18) Yang Ming (2024.02.01.), [https://www.yangming.com/news/Press_Release/PressContent.aspx?BulletinType=PressRelease&UID=14549\(2024.02.16. 검색\)](https://www.yangming.com/news/Press_Release/PressContent.aspx?BulletinType=PressRelease&UID=14549(2024.02.16. 검색))

19) 코리아워킹가제트(2024.01.23.),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40437\(2024.02.16. 검색\)](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40437(2024.02.16. 검색))

3 AD Ports, 파키스탄의 카라치항 운영권 인수²⁰⁾

- ▶ 카라치항만트러스트(Karachi Port Trust)는 카라치항의 벌크 및 일반화물 운영을 위해 AD Ports와 25년간 양허 계약을 체결함
 - 이번 계약을 통해 카라치 동쪽 부두의 11~17번 선석을 개발, 운영 및 관리하는 AD Ports와 카힐 터미널의 합작투자(KGTML)가 이루어질 예정임
 - 새로운 양허는 일반화물 및 벌크 작업을 위해 KGTML에 1.5km의 부두안벽을 제공하며, 이는 주로 철강, 종이 및 클링커 일반화물과 곡물 및 비료를 대량으로 처리할 예정임
 - KGTML은 계약 첫 2년 동안 선불 수수료, 선불금, 상부 구조 및 장비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약 7,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또한 AD Ports는 효율성과 용량을 75% 향상시키기 위해 5년 내 1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벌크 및 일반화물 터미널은 연간 약 800만 톤을 처리했으나, 투자 후 연간 1,400만 톤의 처리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적으로 약 3,000만 달러의 수익과 1,000만 달러의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가 예상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0) Seatrade Maritime(2024.02.04.), [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ad-ports-takes-over-karachi-port-east-wharf-operations\(2024.02.16. 검색\)](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ad-ports-takes-over-karachi-port-east-wharf-operations(2024.02.16. 검색))

3) 미주



1 산투스 항만당국(APS), 산투스항 터미널 확장 계획²¹⁾


- ◆ APS는 '24년 말까지 두 개의 민관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시작할 예정이며, 브라질 터미널 포르투아리오(Brasil Terminal Portuário, BTP)와 산투스 브라질(Santos Brasil) 터미널 규모를 약 150만 TEU 확장할 계획²¹⁾
 - PPP 사업 중 하나는 항로 수심 확보를 위한 것으로 브라질개발은행(Brazilian Development Bank, BNDES)과 함께 접근 항로의 수심을 기존 14.5m에서 17m로 확보하는 것임
 - 다른 PPP 사업은 산투스 항이 위치한 두 도시인 산투스(Santos)와 구아루자(Guarujá)를 연결하는 침매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임
 - APS는 새로운 초대형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은 공식적으로 배제하였으며, 머스크와 MSC의 합작 회사인 BTP와 산투스 브라질 터미널을 확장하여 연간 150만 TEU를 추가 확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1) Seatrade Maritime(2024.01.30.), <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port-santos-plans-terminal-expansion>(2024.02.16. 검색)

2 파나마 운하 통행료 수입 감소²²⁾²³⁾

-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 수입이 '23년 10월 이후 전월 대비 약 1억 달러 감소함

 - 가뭄호 가뭄으로 인해 통행에 제한을 두면서 통행료 수익이 감소하고 있으며, 파나마 운하당국(PCA)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의 통행료 수입이 약 7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다만, 이러한 운하의 통행 감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인상으로 인해 예산에 명시된 회계연도의 수입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다

-  PCA는 4월까지 추가적인 선박 운송을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나, 건기 이후 수위를 평가하여 통행량 혹은 흘수를 조정할 계획임

 - 최근 홍해를 횡단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서 해운선사들이 아시아를 오가는 대체 항로를 선택하여 파나마 운하 수요가 일부 증가하고 있으나, 통행량 제한은 가뭄호 수위 보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임
 - PCA는 4월까지의 일일 통행 선박 수를 24척으로 유지한 다음 5월에 강우량이 증가하면 약 36척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5월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선박 수를 줄일지 혹은 최대 흘수를 43피트로 제한할지 재평가할 예정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2) Port Technology(2024.01.23.),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anama-canal-toll-revenue-drops/>(2024.02.16. 검색)

23) Port Technology(2024.02.13.),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anama-canal-delays-transit-restrictions-until-spring/>(2024.02.16. 검색)

4) 유럽



1 에버그린과 X-Press Feeders, 유럽역내항로에서 그린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이용 계약²⁴⁾

- ▶ 지난 2월 1일, 대만선사 에버그린과 싱가포르 선사 X-Press Feeders는 유럽역내항로에서 그린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박을 이용한 피더서비스 개시 협약
 - 전 세계적으로 100척 이상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X-Press Feeders는 '24년 1분기 중 메탄올과 기존 벙커 연료를 연소할 수 있는 이중 연료 선박 8척을 인도받을 예정임
 - 이후 '24년 2분기부터 이중 연료 선박 운영을 시작할 X-Press Feeders는 두 회사가 유럽에서 최초로 그린메탄올로 운항하는 피더서비스 출시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X-Press Feeders는 에버그린과의 제휴에 앞서 네덜란드의 친환경 연료 제조기업인 OCI글로벌과 유럽 항만에 기항하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의 연료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농민 시위로 앤트워프-브뤼헤항, 함부르크항 등 주요 유럽 항만 운영 차질²⁵⁾²⁶⁾

- ▶ EU 환경 규제와 값싼 외국산 농산물 수입에 반발한 농민들의 시위가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여 주요 항만에 차질이 발생함
 - 특히 벨기에와 독일에서는 앤트워프-브뤼헤항, 함부르크항 등 주요 컨테이너 항만과 이어지는 항만 진입 도로 모두를 트랙터로 차단하는 등 항만에 직접적인 타격을 초래했으며, 홍해 사태에 이어 공급망 혼란을 가중함
 - 농민들의 반발은 '가뭄, 홍수, 폭염 등 이상 기후 지속', '러-우 전쟁에 따른 연료·비료·운송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저렴한 우크라이나 농산물 유입', 'EU '그린 딜 계획'에 따른 휴경지 의무화 및 살충제 사용 50% 감축', 'EU의 남미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FTA 추진', '각국 정부의 배출량 감소를 위한 디젤 유류세 인상 및 보조금 폐지' 등 다양한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24) hellenicshippingnews (2024.02.05.),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evergreen-x-press-feeders-sign-green-methanol-shipping-agreement/\(2024.02.16. 검색\)](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evergreen-x-press-feeders-sign-green-methanol-shipping-agreement/(2024.02.16. 검색))

25) The Guardian(2024.02.10.),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4/feb/10/theyre-drowning-us-in-regulations-how-europes-furious-farmers-took-on-brussels-and-won\(2024.02.19. 검색\)](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4/feb/10/theyre-drowning-us-in-regulations-how-europes-furious-farmers-took-on-brussels-and-won(2024.02.19. 검색))

26) Reuters(2024.02.13.),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port-antwerp-disrupted-by-belgian-farmers-protests-2024-02-13/\(2024.02.19. 검색\)](https://www.reuters.com/world/europe/port-antwerp-disrupted-by-belgian-farmers-protests-2024-02-13/(2024.02.19. 검색))

- 이에 따라, EU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시행, 휴경지 의무화 올해 말까지 한시적 면제, ‘2040 기후 목표’에서 농업 분야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제외, 살충제 사용 감축 의무화 법안 철회 등을 발표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3 유럽항만연합 공공-민간 파트너십 출범²⁷⁾

- 1월 24일, 유럽 위원회는 법 집행 기관, 세관, 항만 당국, 터미널 운영자, 해운 및 물류 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출범을 발표함
 - 이는 지난 10월 채택한 마약 밀매 및 조직범죄에 맞서기 위한 EU 로드맵의 후속 조치이며,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를 모아 마약 및 범죄의 침투로부터 항만을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 마련을 목표로 함
 - 위원회는 세관에 의한 마약 압수 중 70%가 항만에서 일어나며, 작년 앤트워프-브뤼헤 항에서는 121톤의 코카인을 압수하는 등 EU에서 매년 300톤 이상의 코카인이 압수되고 있다고 강조함
 - 한편, EU 비회원국이 소유·통제하는 항만은 해당 동맹에서 제외됨에 따라, 코스코쉬핑이 67%의 지분을 보유한 유럽 5위 컨테이너 항만 그리스 피레우스항이 포함되지 않아, 보안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존재함²⁸⁾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7) European Commission(2024.01.2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344(2024.02.19. 검색)

28) Seatrade Maritime(2024.02.09.), <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concern-over-piraeus-exclusion-european-ports-alliance>(2024.02.19. 검색)

5) 오세아니아



1 호주 DP World 항만노동자 파업 종료²⁹⁾

- 호주 해사 노동조합(Maritime Union of Australia, MUA)의 항만노동자들은 '23년 10월부터 항만 운영사인 DP World와 임금 인상 분쟁으로 파업을 진행, 4개월간의 파업 끝에 2월 2일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함

 - 최종 협상은 시드니의 Fair Work Commission에서 3일간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앞으로 4년간 유효한 새로운 합의서에 서명함
 - 새로운 합의서에는 공정한 임금 및 보상, 안전 조치 강화, 피로 관리, 정년 보장 및 일과 생활의 균형 보장 등이 포함됨
 - MUA는 2월 2일 파업 조치를 철회, 다음날 항만노동자들은 즉각적으로 업무에 복귀함
- 최종 합의에도 불구하고 멜버른, 시드니, 브리즈번 및 프리맨틀항에는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컨테이너가 대량으로 적재되어 있어 대략 3월까지 항만 혼잡 및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 파업은 호주 경제에 매주 약 8,600만 호주달러(약 750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추정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6) 아프리카



1 더반항 Transnet 터미널, 항만 혼잡 감소 계획 발표³⁰⁾

- 더반항의 Transnet 터미널은 기존 인프라와 자원을 최적 활용하여 항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 만성적인 트럭 혼잡 및 선박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함

 - Transnet 터미널은 이 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철도 인프라를 활용하여 더반항의 수출입 컨테이너를 요하네스버그와 음푸말랑가 지역으로 철도와 트럭을 동시에 활용할 계획임
 - 기존 열차는 수출 컨테이너를 Transnet 터미널에 하역한 뒤 빈 차로 항만 배후부지로 돌아가지만 이번 계획을 통해 수입 컨테이너를 돌아가는 열차를 통해 배후부지로 이동 시킨 후 트럭으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장치장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외부 트럭과 운전자를 위한 전용 대기 구역과 효율적인 교통 흐름 통제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여 열차 1회 운행에 60개의 컨테이너를 항만 배후부지에 적재 및 반출할 것으로 계획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9) The loadstar(2024.02.02.), <https://theloadstar.com/dock-workers-down-under-end-strike-at-dp-world/>(2024.02.13. 검색)

30) IOL(2024.01.23.), <https://www.iol.co.za/mercury/news/durban-port-plans-to-tackle-backlog-374e7947-14ce-4f05-96e2-7cb4d0f97765>(2024.02.15.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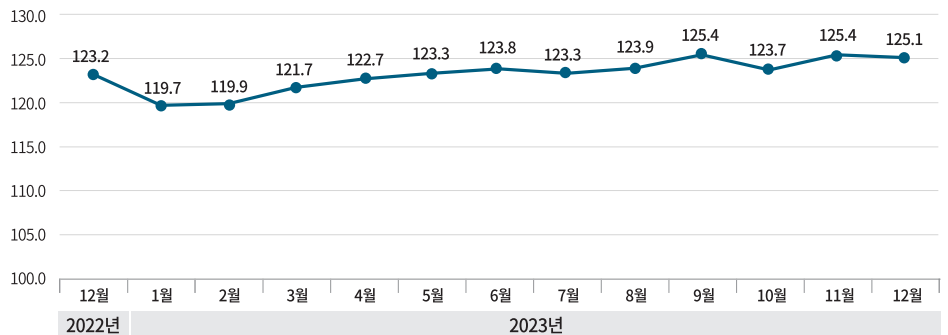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① '23년 12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년 대비 1.5% 증가³¹⁾

- 📊 '23년 12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0.2% 소폭 감소함
 - 11월 말부터 발생한 홍해 리스크가 12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이 다소 감소하면서 전 세계 처리량 지수가 둔화됨
 - 12월 중국의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 지수는 136.9p로 전월 대비 0.4% 소폭 감소함
 - 유로존 북부와 독일 지역의 12월 항만물동량 지수(North Range Index)는 연말 효과로 인해 102.3p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1.0% 증가함



구분	'22년	2023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23.2	119.7	119.9	121.7	122.7	123.3	123.8	123.3	123.9	125.4	123.7	125.4	125.1	-0.2	1.5
China Index	133.8	132.0	129.7	135.9	136.7	137.6	139.2	137.3	138.7	138.4	135.9	137.4	136.9	-0.4	2.3
North Range Index	110.5	100.3	108.6	98.5	109.5	105.8	106.6	107.3	104.9	103.6	103.7	101.3	102.3	1.0	-7.4

주: 2015=100, 계절조정
 자료: ISL,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1223\(2024.02.15. 검색\)](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1223(2024.02.15.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1) ISL,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1223\(2024.02.15. 검색\)](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1223(2024.02.15. 검색))

2 홍해 리스크 향후 1년 지속 가능 경고³²⁾

- 세계 최대 해운선사인 머스크는 홍해에서의 선박 공격으로 인한 수에즈 운하 피해가 향후 1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함**

 -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 세력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에 대한 보복으로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함

- 수에즈 운하 통과 차질로 인한 운송 시간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은 장기간 만연한 인플레이션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격 상승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선박들은 수에즈 운하를 대신하여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경로를 택하고 있으며 컨테이너선의 경우 약 90%가 항로를 변경, 벌크선과 유조선의 경우 약 1/4이 희망봉으로 우회한 것으로 나타남
 - 우회 항로 선택으로 인해 컨테이너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2주, 벌크선과 유조선의 경우 18일 정도 운송 시간이 증가함

- 제네타(Xeneta) 분석에 따르면 머스크와 하팍로이드와 같은 선사들이 수에즈 운하 대신 희망봉을 우회하는 경우 선박당 약 1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함**

 - Drewry의 'World Container Index'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40피트 컨테이너당 세계 운송비는 3,786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90% 증가함
 - 중국 상하이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이동하는 같은 크기의 컨테이너의 경우도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58% 증가한 4,426달러를 기록함
 - 이러한 운임 증가에 따라 소매업체가 소비자들에게 해당 비용 상승분을 전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OECD는 화물 운송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약 1년 후 38개 회원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4% 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밝힘

-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운임 상승이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정점 시기와 대비해서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

 - 팬데믹이 정점이었던 '21년 9월 컨테이너 운임은 10,380달러로 당시와 비교하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코로나 기간 선박의 대량 발주로 인해 전 세계 선박 규모가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영향을 완화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중동 산유국 등 대규모 유조선 등의 공격은 자제하고 있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판단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2) CNN News(2024.02.09.), <https://edition.cnn.com/2024/02/08/business/red-sea-crisis-global-trade-explained/index.html>(2024.02.15. 검색)

2) 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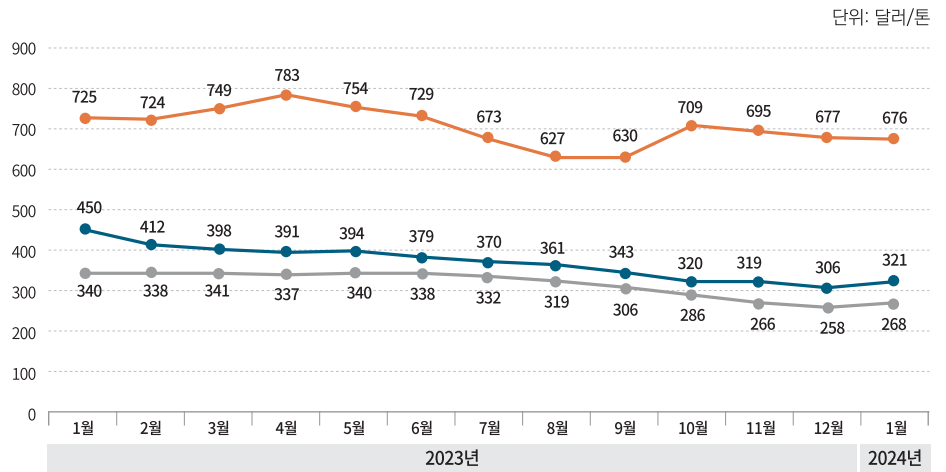


1 '24년 1월 밀 수입단가 전월 대비 5.1% 증가한 톤당 321달러 기록³³⁾

- 반면 옥수수의 1월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0.2%) 톤당 676달러를 기록함
- '24년 1월 대두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3.8% 증가한 톤당 268달러를 기록하며 9개월만에 증가세를 기록함

곡종별 수입단가 월별 추이

● 밀
● 대두
● 옥수수



곡물 수입단가 추이

단위: 달러/톤

구분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3.10	'23.11	'23.12	'24.1
밀	450	412	398	391	394	379	370	361	343	320	319	306	321
대두	725	724	749	783	754	729	673	627	630	709	695	677	676
옥수수	340	338	341	337	340	338	332	319	306	286	266	258	268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http://www.krei.re.kr:18181/new_sub12\(2024.02.16 검색\)](http://www.krei.re.kr:18181/new_sub12(2024.02.16 검색))

2 미국 농무부(USDA), '23/24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과 교역량 모두 증가 전망³⁴⁾

- USDA는 2023/24년도 세계 곡물생산량을 전년 대비 2.2% 증가한 약 28억 956만 톤, 교역량은 동기간 1.6% 증가한 5억 32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세계 밀 생산량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7억 8,574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밀 교역량 또한 전년 대비 4.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반면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12억 3,25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옥수수 교역량 또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10.9%) 약 2억 톤으로 예측함
 - 세계 대두 생산량의 경우 전년 대비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교역량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1억 7,057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 동향 및 정책(2023.02.14.), http://www.krei.re.kr:18181/board/month_market/view/wr_id/7654(2024.02.16 검색)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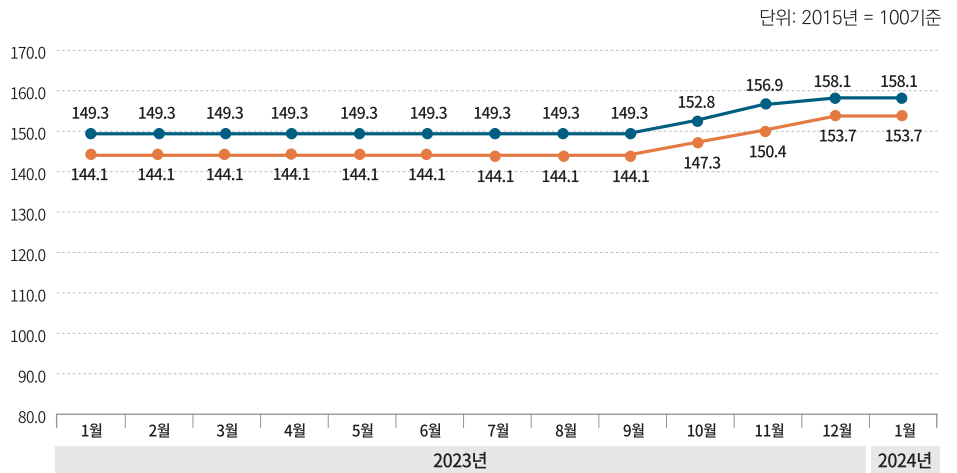
1 1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보합세

’24년 1월 포틀랜드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58.1p, 153.7p를 기록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6.7% 증가함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3년 9월 이후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3년 12월에 이후 변동 없이 보합세를 나타냄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구분	2023년												'24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152.8	156.9	158.1	158.1	0.0	5.9
고로슬래그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147.3	150.4	153.7	153.7	0.0	6.7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12\(2024.02.26.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12(2024.02.26.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시멘트 공장 오염물질 측정, 정부 관리로 전환³⁵⁾

-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의 중금속 측정이 기존 시멘트 공장 자율 검사에서 한국 환경공단이 직접 조사하는 법정 검사로 전환됨

 - 환경부는 기존 자원순환 업계와 시멘트 업계 균형 발전 논의 결과, 시멘트 업계 반입 폐기물의 중금속 검사가 사실상 시멘트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기존 자원순환 업계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준 및 관리도 부실하다고 판단함
 - '24년 상반기부터 환경공단 및 지자체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시멘트 공장 반입 폐기물 중금속 검사 등을 법정 검사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시멘트 제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시멘트 제품 유해성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5) 에너지데일리(2024.02.19.),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197>(2024.02.19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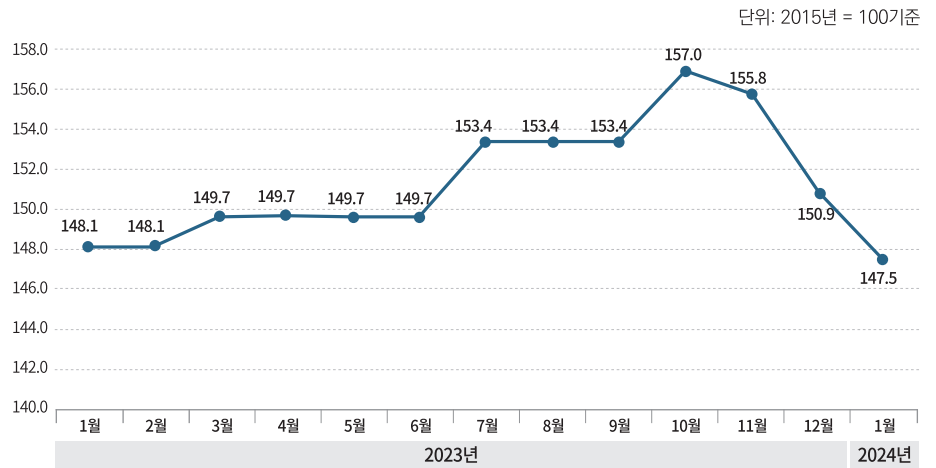
4) 모래



1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47.5p 기록

- ’24년 1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3% 감소,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함
- ’22년 3월부터 ’23년 10월까지 꾸준히 증가한 생산자물가지수가 ’23년 11월 이후 감소세를 보임
- ’23년 11월부터 시작된 인천지역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생산자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됨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3년												'24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48.1	148.1	149.7	149.7	149.7	149.7	153.4	153.4	153.4	157.0	155.8	150.9	147.5	-2.3	-0.4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l2\(2024.02.26.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l2(2024.02.26. 검색))

2 국토교통부 '24년 골재수급계획 발표³⁶⁾

- 국토교통부는 '24년 국내 건설투자 전망치, 주택공급호수, 레미콘 골재 소비량(1.2m³/m²) 및 점유비(72%) 등을 토대로 '24년 골재 수요는 217,567천 m³로 추정, 공급은 유통 과정의 손실 물량 및 경기변동에 따른 수급 안정을 위해 수요 전망치 대비 7.5% 많은 233,885천 m³로 계획함**

 - 지역별 수요는 수도권이 가장 많은 44.8%, 경상권 24.3%, 충청권 14.4%, 전라권 11.2%, 강원권 4.0% 및 제주 1.5% 순임
 - 공급은 허가 물량 118,253천 m³(50.6%) 및 신고 물량 115,632천 m³(49.4%)로 구성됨
- '24년 바다골재 공급 물량은 11,694천 m³로 총공급 물량의 5.0%, 허가 물량의 9.9%를 차지함**

 - '24년 바다골재 공급 물량 중 46.4%인 5,429천 m³는 연안바다, 48.6%인 5,681천 m³는 EEZ, 그리고 5.0%인 584천 m³는 탄력 배정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채취할 예정임
 - 바다골재 채취지역은 인천과 서해EEZ로 각각 5,429천 m³(연안바다), 5,681천 m³(EEZ) 채취하며 탄력 배정분에 한하여 하반기 중 실제 채취 현황, 지자체별 행정절차 이행 현황 등을 평가하여 관계기관 협의 후 재조정함
- '23년 바다골재 공급량은 채취허가 지연 등으로 계획 대비 저조한 실적인 4,268천 m³를 기록, 전체 공급실적(222,671천 m³)의 1.9%를 차지함**

 - 수도권의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관계기관의 협의로 인천 바다모래 허가가 지연되어 인천, 경기서·남부에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함
 -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남해EEZ 채취 중단으로 인천 옹진군, 서해EEZ의 바닷모래를 반입하여 공급, 타 권역 대비 높은 바다골재 가격이 책정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6) 국토교통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2024.01.29.), [https://www.agris.go.kr/agris2/info/sdplanView.do?aggSupplyDemandPlanSno=620\(2024.02.09. 검색\)](https://www.agris.go.kr/agris2/info/sdplanView.do?aggSupplyDemandPlanSno=620(2024.02.09.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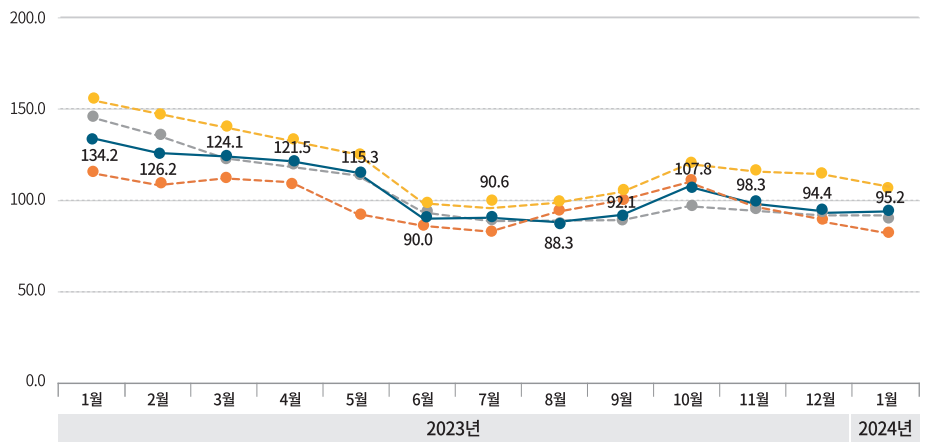
① '24년 1월 유연탄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함

-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 NAR) FOB기준 연료탄 1월 평균가는 95.2달러로 전월 대비 0.8% 증가함
- 지역별로는 호주 뉴캐슬산과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산 유연탄 가격은 0.8%씩 증가한 반면, 남아공 리차드베이산은 6.2% 감소함(전월 대비 기준)

단위: 달러/톤

유연탄 가격 추이

- 뉴캐슬
- 리차드베이
- 칼리만탄
- 중국남부



구분	2023년												'24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134.2	126.2	124.1	121.5	115.3	90.0	90.6	88.3	92.1	107.8	98.3	94.4	95.2	0.8	-29.1
리차드베이	114.9	108.5	112.2	110.0	92.7	86.0	83.1	93.6	100.2	110.1	96.7	89.7	84.1	-6.2	-26.8
칼리만탄	145.5	135.5	123.3	119.0	113.7	93.5	88.7	88.5	89.2	96.9	94.5	91.9	92.6	0.8	-36.3
중국남부	155.0	147.5	140.1	133.4	125.4	98.6	95.8	98.8	104.9	120.1	116.3	114.5	108.1	-5.5	-30.2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
(2024.01.25.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전 세계 석탄 소비량 감소세 전망³⁷⁾

- 영국의 에너지싱크탱크인 ‘우드매켄지’는 ‘24년 전세계 석탄 소비량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함
 - 석탄은 주로 전기, 운송, 난방 등에 사용되며, '22년 기준 전세계 에너지의 약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지구상에서 매년 연소되는 전체 석탄의 약 50% 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22년 기준 약 82억 5천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중국의 석탄 연소에서 배출됨
 - 이는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양임
 - 그러나 석탄 최대 소비국인 중국이 친환경 에너지원 투자와 탈석탄을 주도하면서, '24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37) 뉴스트리(2024.01.29.),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401290017>(2024.02.16.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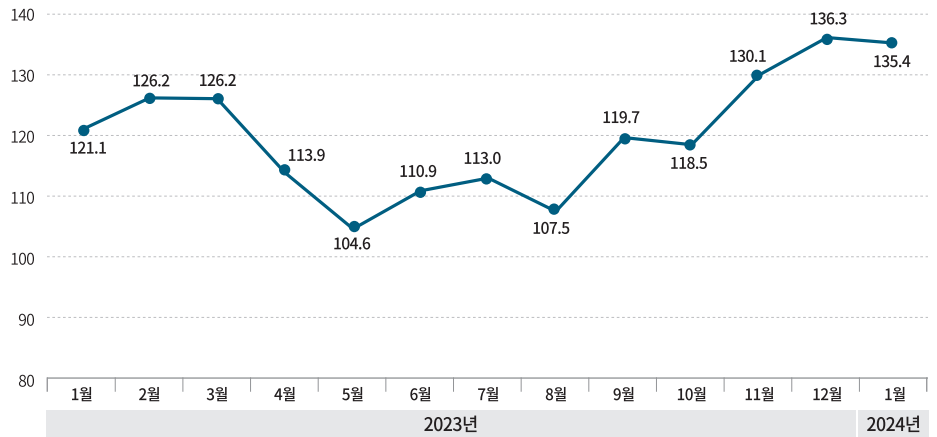
6) 철광석



1 '24년 1월 철광석 가격 전년 동월 대비 11.8% 증가한 135.4달러 기록

- '24년 1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톤당 135.4달러로 전월 대비 0.7%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11.8% 높은 수준을 유지함
- 11월부터 이어진 철광석 가격 급등세가 올해 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으며, 1월 19일 기준으로 톤당 129.2 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함
- 다만, 중국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 발표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가격이 안정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철광석 가격 추이



구분	2023년												'24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21.1	126.2	126.2	113.9	104.6	110.9	113.0	107.5	119.7	118.5	130.1	136.3	135.4	-0.7	11.8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
(2024.02.15.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중국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철광석 가격 상승 전환³⁸⁾

- ▶ 지난 1월 26일 기준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철광석 가격은 톤당 135.31달러로 지난 2주 동안 하락한 후 상승세로 전환됨
 - 이는 올해 최저치인 톤당 133.99달러보다 1% 높은 수준으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하락세에서 반등한 점이 주목할 부분임
- ▶ 이 같은 상승세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부동산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대출 확대·개선 정책 발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 인민은행은 은행이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 현금을 대폭 줄여 부동산 및 인프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을 늘리기로 함
 - 또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 개선 정책 등을 발표하는 등 중국의 건설 수요 확대를 위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함
- ▶ 이러한 경기 부양 정책이 실제 중국의 수요 및 건설 활동 증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낙관론자들은 이러한 기대감 자체가 철광석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임
 - 한편, 전 세계 해상 철광석의 약 70%를 구매하는 중국은 지난달에만 약 1억 톤 이상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철광석 항만 재고량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추가 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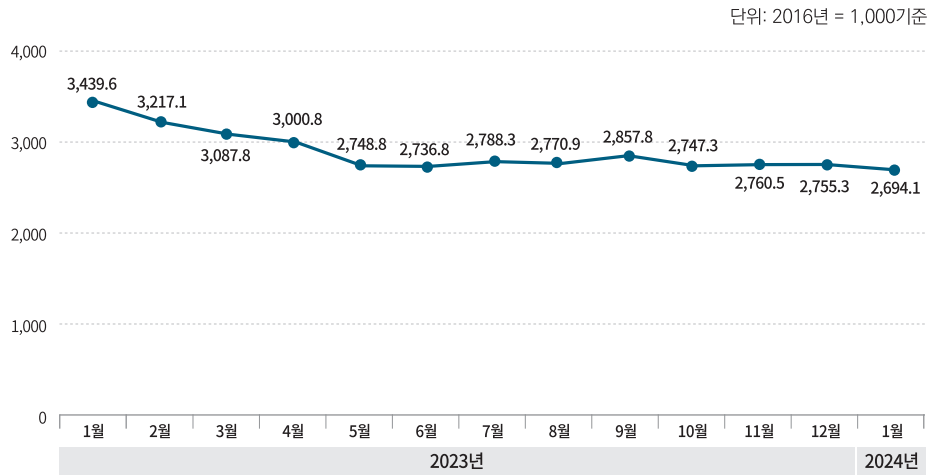
38) 한국경제(2024.02.0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029790i>(2024.02.15 검색)

7) 기타광석



1월 광물종합지수는 2,694.1p로 전월 대비 2.2% 감소

'24년 1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2.2%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21.7% 하락한 2,694.1p를 기록함



구분	2023년												'24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 종합지수	3,439.6	3,217.1	3,087.8	3,000.8	2,748.8	2,736.8	2,788.3	2,770.9	2,857.8	2,747.3	2,760.5	2,755.3	2,694.1	-2.2	-21.7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priceStocks/priceStocks/priceStocks.do\(2024.01.25. 검색\)](https://www.komis.or.kr/komis/price/priceStocks/priceStocks/priceStocks.do(2024.01.25.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미국,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핵심광물협약체 구성³⁹⁾

- 미국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여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함
 - 美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월 9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은 'C5+1' 핵심광물대화 첫 회의를 개최함
 - 'C5+1' 핵심광물대화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희귀 광물 무기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것을 계기로 출범함
 - 회의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과 자원 개발 등을 논의함
 - 한편, 중국은 지난 '23년도 8월부터 차세대 반도체에 쓰이는 희귀광물로서 중국이 전세계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였으며, 흑연 수출 통제 방침도 내놓은 상황임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39) 조선비즈(2024.02.10.),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2/10/EF6HZVFOUJEMTGLKQHRI4YMUOE/\(2024.02.16. 검색\)](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2/10/EF6HZVFOUJEMTGLKQHRI4YMUOE/(2024.02.16. 검색))

8) 목재



1 '23년 1~11월 누적 원목 수입금액은 2억 9,22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2% 감소

- 📌 국내 건설/건축 침체로 재고 부담이 가중되며 수입물량 감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과 유럽의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목재 수요가 감소하여 산지의 목재제품 가격 보합세가 지속됨
- '23년 11월 목재 품목별 누적 수입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제재목 30.7%, 성형목재 22.3%, 합판은 16.9% 등 모든 품목에서 큰 감소세를 보임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	2023년 누적 (1-11월)	2022년 누적 (1-11월)	증감률(%)
원목	292,214	424,683	-31.2
제재목	447,924	646,227	-30.7
성형목재	96,398	123,993	-22.3
합판	596,176	717,470	-16.9
파티클보드	163,832	224,401	-27.0
섬유판	67,086	69,701	-3.8
목재펠릿	516,996	637,346	-18.9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3.12.21.),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90300&bbsId=BBM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4.02.27. 검색\)](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90300&bbsId=BBM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4.02.27.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2024년 산림·임업 전망대회 개최⁴⁰⁾

-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2024년 산림·임업 전망대회’를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개최함**

 - 제1부 공통세션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방향과 ’24년 산림·임업·산촌의 종합적인 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로 구성됨
 - 제2부 특별세션에서는 숲으로 살리는 경제, 숲으로 올리는 소득, 숲으로 지키는 환경, 숲과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선도적인 산림과학 기술과 정책에 대해 논의함
 - 제3부 전망세션에서는 임업인, 목재산업, 산림 관련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위해 임산물, 단기소득 임산물, 산림서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로 진행됨
- 목재산업 분야는 ’23년 국산 목재 수요량은 원자재 가격 상승,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한 26,987천 m³로 잠정치를 예상했으며, ’24년에는 1.1% 더 감소한 26,698천 m³로 수요량을 예측함**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량은 작년 봄철 이상기온, 병해충 등으로 전년 대비 26.6% 감소한 244천 톤이었으며,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감소폭이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20.0% 증가한 535천 톤으로 예상됨
 - 산촌 인구는 ’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2.6%인 약 135만 명이며 전체 산촌의 90.3%가 소멸 고위험단계로 파악되어 은퇴 세대의 산촌 유입,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됨
 - 산림 분야 기후변화는 최근 5년(’18~’22년)간 평년(’80~’10년) 대비 평균기온이 0.4°C~1.0°C 상승하였고 겨울철부터 봄철 강수량은 평년 대비 감소했지만, 여름철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변화는 산림자원 및 생태계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모니터링 강화, 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림 관리 모색 등 다양한 대응책이 논의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4.01.1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1400&pWise=mSub&pWiseSub=C2#pressRelease\(2024.02.16. 검색\)](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1400&pWise=mSub&pWiseSub=C2#pressRelease(2024.02.16. 검색))

9) 고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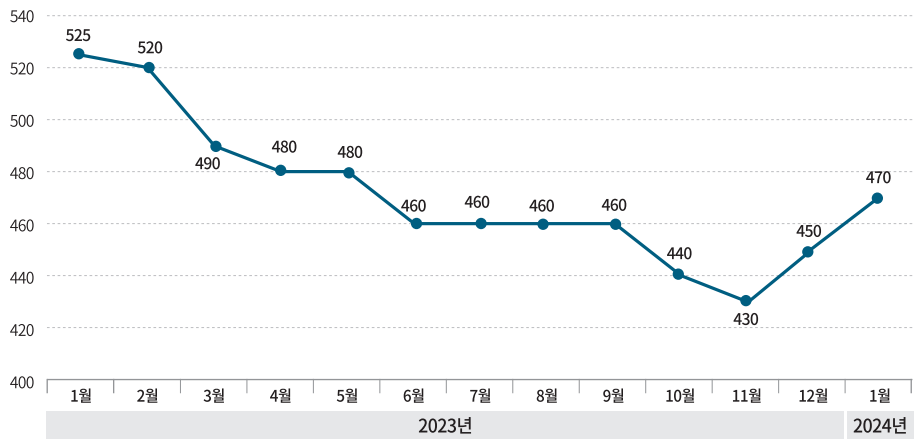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고철 가격 2개월 연속 반등

- 📍 국내 1월 생철 가격은 톤당 47만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월 대비 4.4%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0.5% 감소한 수준임
- '23년 1월 톤당 52만 5천 원을 기록한 생철 가격은 11개월 연속 보합세 및 하락세를 유지했으나, '23년 12월과 '24년 1월 각각 톤당 2만 원씩 증가함

단위: 천 원/톤



구분	2023년												'24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생철	525	520	490	480	480	460	460	460	460	440	430	450	470	4.4	-10.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4.02.22.),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2.26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23년 고철 자급률 86.6% 기록⁴¹⁾

- ◆ '23년 고철 자급률이 전년 84.9% 대비 1.7%p 상승한 86.6%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 고철 자급률은 '19년까지 80% 미만에 머물렀으나, '20년(85.1%), '21년(85.8%), '22년(84.9%) 모두 85%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2년에 이어 '23년에는 건설경기 악화로 제강사 고철 소비량이 약보합세(-0.6%)를 나타냈으나, 수입 물동량이 전년 대비 7.8% 감소한 반면 국내 구입은 0.7% 증가하여 자급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1) 철강금속신문(2024.02.14.), <http://pdf.snmnews.com/PDF/REAL/2024/02/14/PS010214010100301B0001.pdf>(2024.02.19.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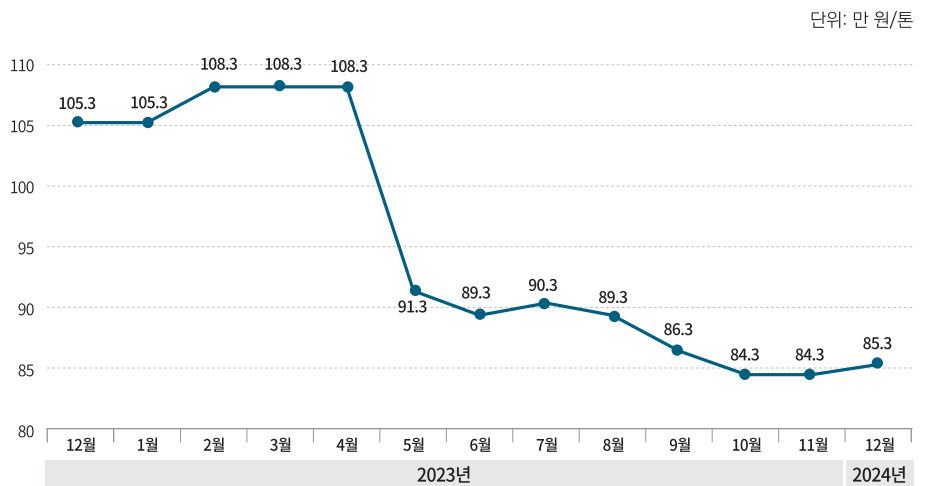
10) 철재



열연코일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열연코일 가격 소폭 상승

- 1월 열연코일(3.0×4×8mm) 가격은 전월 대비 1.2% 증가한 84만 3천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9.0% 하락한 수준임
- '22년 4월에 톤당 130만 원대 후반을 기록하는 등 높은 가격을 나타냈던 열연코일 가격은 '22년 하반기에 톤당 100만 원대까지 급격히 하락했으며, 지속된 철강 전방 수요 침체로 '23년 9월부터는 톤당 80만 원대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



구분	2023년												'24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열연코일	105.3	105.3	108.3	108.3	108.3	91.3	89.3	90.3	89.3	86.3	84.3	84.3	85.3	1.2	-19.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4.02.22.),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2.26 검색\)](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4.02.26%20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23년 철근 수요 9년 만에 최저치 기록⁴²⁾

-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로 '23년 국내 철근 수요는 '14년(972만 톤) 이후 최저치인 967만 톤을 기록함

 - '23년 철근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5.0% 감소한 919만 톤, 수입은 21.4% 급감한 49만 톤을 기록하여 철근 총수요는 전년(1,028만 톤) 대비 6.0% 감소한 967만 톤을 기록함
 - 코로나19 경기 부양책과 함께 '21년 1,125만 톤으로 급증했던 국내 철근 수요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로 2년 연속 급감함
 - 부동산 시장 침체와 PF발 위기 확대 가능성으로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가 나날이 고조 되는 가운데, 종합건설기업 폐업 공고 건수도 581건을 기록하여 1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2) 철강금속신문(2024.02.14.), <http://pdf.snmnews.com/PDF/REAL/2024/02/14/PS010214010100401B0001.pdf>(2024.02.19. 검색)

11) 자동차



① '23년 국내 자동차산업, 내수·수출·생산 모두 전년 대비 증가⁴³⁾

12월 전년 동월 대비 실적은 내수는 감소했으나, 수출과 생산은 증가함

- 내수는 소비심리 위축, 대기수요 소진, 전년 12월 누적된 대기수요 해소로 연중 최대 판매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한 143,245대(국산차 12.3% 감소한 114,984대, 수입차 5.5% 감소한 28,261대)를 기록함
- 수출은 최대 수출시장인 북미·유럽 내 견조한 국산 SUV·친환경차 수요로 수출이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3.5% 증가한 247,206대를 기록함
- 생산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와 수출 증가에 따른 생산 확대로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한 367,631대를 기록함

단위 : 대, 백만\$, %

'23년 12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률		
	연간	12월	1~12월	11월	12월	1~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내수	1,684,113	160,985	1,684,113	160,476	143,245	1,739,249	-10.7	-11.0	3.3
(국산차)	1,384,722	131,066	1,384,722	132,502	114,984	1,451,663	-13.2	-12.3	4.8
(수입차)	299,391	29,919	299,391	27,974	28,261	287,586	1.0	-5.5	-3.9
수출	2,300,333	217,721	2,300,333	244,930	247,206	2,766,271	0.9	13.5	20.3
(완성차 수출액)	54,067	5,421	54,067	6,529	6,389	70,870	-2.1	17.9	31.1
(부품 수출액)	23,316	1,986	23,316	1,927	1,773	22,963	-8.0	-10.8	-1.5
생산	3,757,049	353,372	3,757,049	370,513	367,631	4,243,597	-0.8	4.0	13.0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4.01.29.),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06&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4.02.16. 검색\)](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06&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4.02.16.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3)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3.01.29.),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06&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4.02.16. 검색\)](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06&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4.02.16. 검색))

2 현대글로벌비스, '27년까지 초대형 자동차 운반선 4척 도입⁴⁴⁾⁴⁵⁾

- ▶ 현대글로벌비스는 2월 6일 평택항 자동차 전용 터미널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초대형 자동차운반선(PCTC: Pure Car & Truck Carrier)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선주사업을 통해 PCTC를 신조 발주하여 '27년 현대글로벌비스에 인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선사는 초기 선박 건조비용 부담 없이 신조선 확보가 가능함
 - 이번 도입은 현대글로벌비스가 '23년 10월 발표한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엔진 PCTC 12척 확보 계획의 일환이며, 이번 협약으로 1만 800대 수송이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10,800CEU급)의 PCTC 4척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최근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자동차 물동량 증가와 노후 선박 폐선에 더해 홍해 해협에서 발생한 물류 리스크로 PCTC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현대글로벌비스의 PCTC 추가 도입은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4) 아시아투데이(2024.02.05.),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205010002046>(2024.02.16. 검색)

45) 이코노뉴스(2024.02.09.), <https://www.econ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937>(2024.02.16.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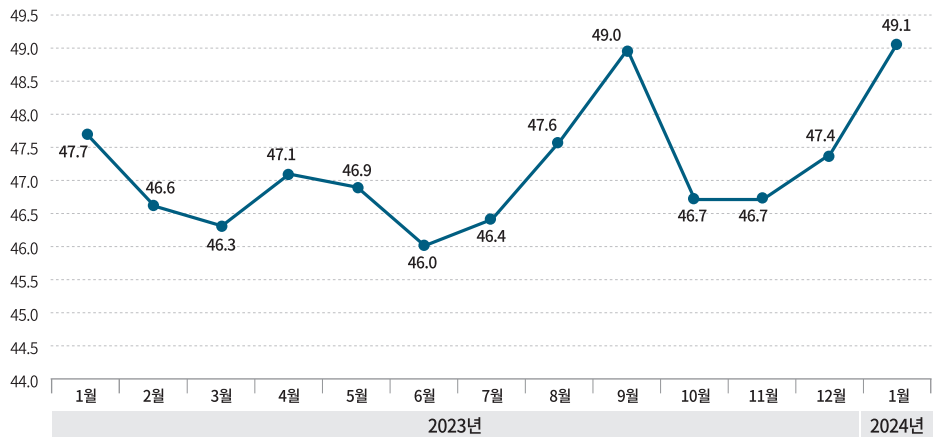
12) 잡화



1 '24년 1월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의 PMI 지수⁴⁶⁾, 전월 대비 상승한 49.1p(+1.7p) 기록⁴⁷⁾

- 🏠 미국의 1월 PMI 지수는 49.1p로 15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신규주문지수는 3년여 만에 월간기준 최대 상승폭(5.5p)을 기록하며 52.5p를 기록함
 - 생산지수도 50.4p를 기록하며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기확장세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ISM은 미국 제조업 분야가 안정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함
 - 반면 고용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0.04p) 47.1p를 기록함

미국 PMI (구매관리자 지수)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 (2023.02.01.), KMI 작성

이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8, sygen@kmi.re.kr

46)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 매달 400개 이상의 구매, 공급 관련 기업의 중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함, 경제를 파악하는 선행지표로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 미만은 경기의 축소를 의미함

47) Trading Economics(2023.02.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2024.02.16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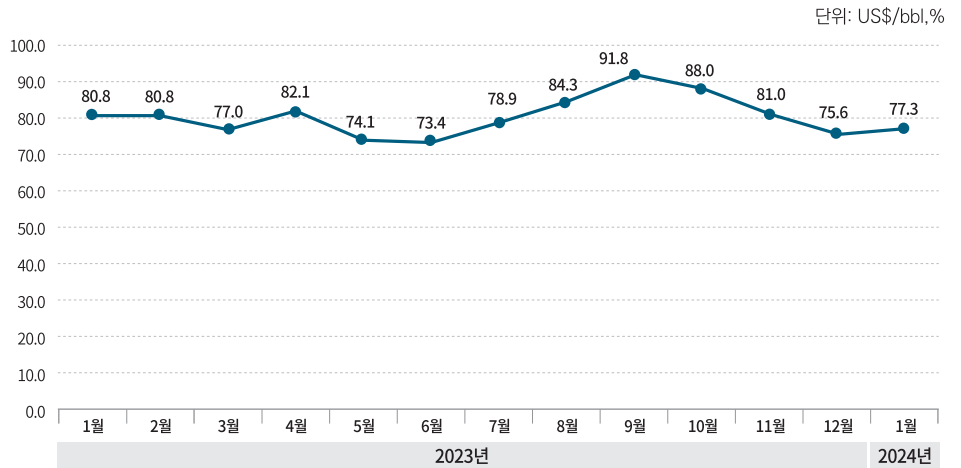
13) 유류



국제 원유 가격 추이

1 '24년 1월 국제유가, Dubai, Brent, WTI 모두 전월 대비 반등

- 📌 지난 9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던 국제유가는 '24년 1월에 반등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평균 77.3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러·우 전쟁에 따른 제재, 이·팔 전쟁과 홍해·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갈등의 확산,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 유가 증감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유가는 유동적임




구분	2023년												'24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80.4	82.1	78.5	83.4	75.0	75.0	80.5	86.5	93.3	89.8	83.6	77.3	78.9	2.0	-2.0
Brent	83.9	83.5	79.2	83.4	75.7	75.0	80.2	85.1	92.6	88.7	82.0	77.3	79.2	2.4	-5.7
WTI	78.2	76.9	73.4	79.4	71.6	70.3	76.0	81.3	89.4	85.5	77.4	72.1	73.9	2.4	-5.5
평균	80.8	80.8	77.0	82.1	74.1	73.4	78.9	84.3	91.8	88.0	81.0	75.6	77.3	2.2	-4.4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유가동향 국제유가,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2.16.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 홍해를 통한 LNG 수출 중단 결정⁴⁸⁾

-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유럽으로 향하던 선박 3척과 유럽에서 하역하고 카타르로 돌아오던 선박 1척이 항해를 중단함

 - 현지시간 1월 14일 LNG를 싣고 유럽으로 향하던 3척의 선박이 항해를 중단하고 오만 인근 해상에 대기하였으며, 유럽에서 LNG 하역 후 카타르로 돌아오는 선박 1척도 홍해에서 항해를 중단함
 - 카타르에서 유럽까지는 통상 18일이 소요되나 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 9일이 더 소요되며 항로 변경 시 유럽향 LNG 선박 인도 지연 및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유럽과 아시아의 LNG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카타르의 LNG 생산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카타르가 유럽향 LNG 운반선의 목적지를 아시아로 변경하고 아시아로 향하는 미국의 LNG 운반선이 유럽으로 목적지를 바꿀 경우,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8)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4.01.16),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2.16. 검색)

3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 원유 생산능력 증대 계획 철회⁴⁹⁾

- 3**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사인 사우디 아람코는 '27년까지 최대 지속가능 원유 생산능력을 100만 b/d 증대하는 계획을 철회함

 -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기술·운영상 문제는 아니라고 Reuters는 보도함
 -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는 Saudi Aramco에 최대 원유 생산능력 확대 계획을 중단하고 현 수준인 1,200만 b/d를 유지할 것을 지시함
 -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목표 변경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석유 수요에 대한 장기 전망 변화로 기인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로이터는 아람코의 목표 변경이 정부 견해와는 별개인 것으로 보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생산량 감산 정책을 펼치고 있어, 현재 약 300만 b/d 잉여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공급 부족 시 언제든지 생산량 증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람코가 생산능력을 증대할 경우, 유지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시장 전문가들은 사우디 아라비아가 석유에 대한 자본투자를 축소하고 가스 및 신에너지 분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예상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 국제에너지기구(IEA), '24년 세계석유공급 충분할 것으로 전망⁵⁰⁾⁵¹⁾

- 4** IEA는 '24년 세계석유수요 증가분 전망을 전월 전망 대비 18만 b/d 상향한 124만 b/d로 전망함

 - 종전 대비 세계 경제 전망 개선, 중국의 석유화학 부문 확장, '23년 4분기 원유 가격 하락 등이 세계석유수요 전망 상향 요인임
 - 다만 IEA의 수요 전망 상향에도, '24년 세계석유수요 증가분 전망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전망치를 하회하고 있으며, 비OPEC+ 공급의 강한 증가세에 힘입어 석유 흐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한 '24년 석유공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브라질, 가이아나 등 미주 지역의 공급 증가세가 세계 석유 수요 성장을 충족시키고 유가 하향 압력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9)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4.01.31),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2.16. 검색)

50)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4.01.19),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2.16. 검색)

51)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4.02.14),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4.02.16.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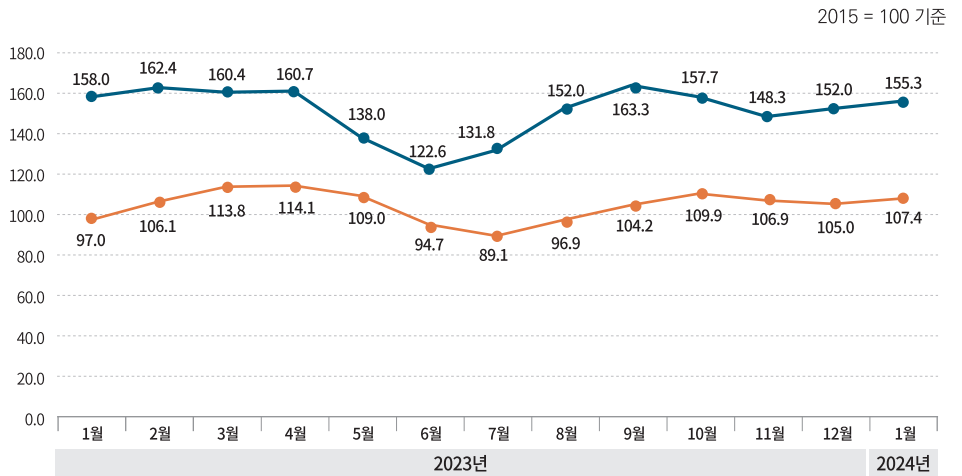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나프타
● 에틸렌

1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나프타 상승 · 에틸렌 상승

- ’23년 12월 나프타의 생산자물가지수가 반등하고 뒤이어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도 ’24년 1월 반등하면서 두 품목 모두 전월 대비 상승함
- 나프타는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며, 에틸렌 생산 원료로 사용되므로 통상 에틸렌 지수 대비 선행하는 경향을 보임
- 유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나프타 및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도 동반 상승하고 있으나, 홍해 리스크 등으로 유가가 계속 변동하고 있어 나프타와 에틸렌 생산자물가 추이도 유동적일 것으로 보임



구분	2023년												'24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58.0	162.4	160.4	160.7	138.0	122.6	131.8	152.0	163.3	157.7	148.3	152.3	155.3	1.9	-1.7	
에틸렌	97.0	106.1	113.8	114.1	109.0	94.7	89.1	96.9	104.2	109.9	106.9	105.0	107.4	2.3	10.6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4.01.23.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4.01.23.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한화솔루션, '고순도 크레졸' 사업 연기⁵²⁾⁵³⁾

오는 5월 31일로 예정된 한화솔루션의 신사업인 고순도 크레졸 사업이 연기됨

- 헬스케어, 플라스틱 첨가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크레졸은 기초소재 부문 신사업에 해당하는 고부가가치 소재임
- 한화솔루션은 당초 '세계 3위 크레졸 사업자'를 목표로 총 1,707억 원을 투입해 연 3만 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출 계획이었으며, '23년 9월 사업 추진을 계획했으나 올해 5월로 미룬 바 있음
- 한화솔루션은 연구개발 기간 연장에 따라 투자 기간에 변동이 발생했다며, 연구개발 및 설비보완을 진행해 향후 투자 진행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 에쓰오일, 바이오·순환 원료 기반의 '저탄소 제품' 생산 개시⁵⁴⁾⁵⁵⁾

에쓰오일은 저탄소 에너지, 친환경 화학제품 생산을 위해 폐식용유, 팜 부산물 등의 바이오 원료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초도 물량 투입을 시작함

- 에쓰오일은 '23년 7월과 12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바이오 원료 처리에 대해 각각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으며, 원료 투입설비 설치 등 신속한 준비 작업을 공정을 시작함
- 기존 정유 공정에 바이오 원료와 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유와 함께 투입·처리해 탄소집약도가 낮은 저탄소 연료유(지속가능항공유, 차세대 바이오디젤 등)와 친환경 석유화학 원료(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 생산을 개시함
- 바이오 원료의 정유 공정 투입은 에쓰오일이 국내 정유사 중 최초이며, 향후 2년 동안 새로운 대체 원료의 혼합 비율을 조정하면서 전체 제품 수출 변화와 공정 영향성 등을 평가해 나갈 예정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2) EBN 산업경제(2024.01.25.), <https://chem.ebn.co.kr/news/view/1610350>(2024.02.16. 검색)

53) 한국석유화학협회(2024.01.26.),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943 (2024.02.16. 검색)

54) EBN 산업경제(2024.01.29.), <https://chem.ebn.co.kr/news/view/1610634>(2024.02.16. 검색)

55) 한국석유화학협회(2024.01.29.),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947 (2024.02.16. 검색)

연구책임자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이기열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위원

김영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수영 항만정책·운영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원

감리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4년 2월 29일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